“민생·평화·민주·개혁 깃발로 지방선거 압승 거두겠다”

민주평화당 광주·전남 등 5개 시·도당 창당대회

광역·기초의원들 속속 합류
시당위원장 최경환 의원
도당위원장 이용주 의원 선임
6일 국회서 중앙당 창당대회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가 1일 광주와 여수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광역·기초의원들이 속속 민평당에 합류하면서 창당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1일 민평당은 광주와 여수에서 광주시당·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창당대회에는 1000여명의 당원들이 모여 당 창당을 축하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인 천정배·장병완·김경진·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했고, 광주시의회 유정심·박춘수 의원과 서구의회 오광록 부의장 등 10여명의 기초의회 의원들도 민평당 창당 발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민평당 광주시당은 초대 위원장으로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을 선임했다. 최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안철수와 유승민의 길은 보수 야합의 길이다. 호남의 길이 아니다”며 “민주주의, 평화, 개혁의 심장인 광주에서 새 깃발을 들고 출발점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와 호남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다”며 “민평당은 호남정신, 호남민심을 따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민평당은 위대한 광주 정신을 가장 치열하고 정확하게 대변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도 “당원이 단순히 당 대표만 따라가는 정당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평당 전남도당도 여수시민회관에서 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도당 창당대회에는 박지원·이용주·박준영·정인화·윤영일 의원과 박홍률 목포시장 등 1500여명이 자리했다. 도당위원장으로는 이용주(전남 여수갑)의원이 추대됐다.

박지원 의원은 격려사에서 “씨암탉 삶아주니까 엎어버리는 사람, 정당의 해체는 전당대회에서 한다고 정당법에 돼 있는데 무서워서 전당대회도 못하는 당, 이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민평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남의 발전을 위해 민평당은 무한 봉사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지 않는 호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의원은 도당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이제 김대중 정신, 호남정신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이 깊게 새겨진 새로운 녹색 깃발을 저희와 함께 들어달라”고 말했다.

특히, 민평당 시·도당은 이날 창당 결의문에서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을 새로운 정당 기치로 채택했다. 또 민생문제 해결 최우선 추진, 햇볕정책 계승·발전, 다당제·합의제 정치개혁 주도, 적폐청산과 촛불시민혁명 완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등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기·전북 등지에서도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 민주평화당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는 열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부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석 의원,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박 부의장, 황주홍 의원, 주승용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전대 방해에 전당원투표는 고육지책”

투표 일정 조율 실무 준비 박차
당명 ‘바른국민’ ‘미래당’ 압축
반대파 “절차 무시한 폭거”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통합 반대파의 불법적인 전대 방해 행위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을 쓰는 것”이라며 바른정당과 합당을 위한 전당원투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하지만, 반대파에서는 안 대표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당원들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안 대표는 전날 당헌 개정을 통해 전당원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세부 투표 일정을 조율하는 등 실무준비에 속도를 냈다.

안 대표 측에서는 오는 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개정한 뒤 곧바로 당무위를 열어 선관위를 구성하고 8일~11일 사흘간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원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할 경우 11일 중앙위에서 이를 추인하고, 13일 바른정당과 통합 전대를 열어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안 대표 측의 구상이다.

또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추진위원회 2차 확대회의를 열어 통합신당 당명 후보를 ‘바른국민’과 ‘미래당’ 등 2개로 압축하고 2일 재논의해 최종적으로 확정키로 했다.

당헌 개정에 대한 통합반대파의 공세에는 “반대파의 불법 전대방해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응수했다.

그러나 반대파에서는 “안 대표는 처음부터 무슨 수를 써서든 합당을 관철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 규정을 멋대로 바꾸고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대파의 한 의원은 “민주평화당 창준위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는 이중당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평당이 선관위에 등록해야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 후에 명단을 조사해 정리해도 되는데, 결국 전대에서 통합안을 의결할 자신이 없으니 전당원투표로 대체하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정당 전당대회 5일 예정대로 진행

바른정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확정할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오는 5일 실시하기로 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논의 끝에 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전날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전(全)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대 연기 여부를 고민해 왔다.

당내에선 전대를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의당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양론이 부딪히면서 격론이 일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통합은 기정사실로 된 것이고 통합 열차에 올라탄 상황에서 원래 약속한 대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국민의당 내부 사정에 의해 바른정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중재파 4인 통합신당 합류 하나

박주선·김동철·주승용·이용호… 민평당 교섭단체 구성 난망

황주홍 의원을 제외한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의원, 이용호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이 통합 신당에 잔류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일 최종 입장을 밝힌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며,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한 당헌 개정 등 무리수를 남발했던 당내 통합파는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분당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사실상 분열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중재파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 박주선 부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분열 없는 통합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선이 무망한 상태에서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공식 입장은 내일 오후 2시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가 전날 사퇴 의사를 발표한 것이 중재파의 의견을 다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핵심 기반인 호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이 ‘차선책이라는 것이 통합신당에 합류하는 것이냐, 혹은 무소속으로 남는 것이냐’라고 묻자 “지금은 무소속으로 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에 참여한 중재파 4인과 손금주, 송기석 의원 등 6명이 내일 통합정당 합류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고, 주 전 원내대표 역시 “통합정당 잔류가 현재 상황에서 차선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막판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합신당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중립파로 분류됐었던 황주홍 의원의 경우, 논의 도중 회동장을 나와 “중재는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라며 “중재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명무실해졌다”고 밝혀, 통합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황주홍 의원을 제외한 당내 중립파가 국민의당 잔류를 선택하게 된다면 광주·전남 정치권도 극도의 분열상을 보일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국민의당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박지원, 천정배, 장병완 의원 등 9명이 민평당에, 박주선, 김동철, 권은희, 송기석, 주승용 의원 등 5명이 통합신당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황주홍, 손금주 의원은 어느 당으로 갈 것인지 아직까지는 유보적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측에서는 중재파의 통합신당 잔류 가능성에 “내일까지 일단 지켜보자”면서도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호남 민심을 외면하고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며 분개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안 대표가 전대 직후 사퇴로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했는데도 국민의당에 잔류 및 통합신당 합류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으로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호남 중진이라는 인사들이 대승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영달을 위해 호남의 자존심을 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